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8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6.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하나님, 9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청과의 가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덧거친 세상일들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놓지만, 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추분이 지나 한로를 향해 나아가는 이 때, 우리 속에 서늘한 하늘 기운을 채워주셔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위선과 이기심의 뿌리를 도려내 주십시오. 무정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안일함과 비겁함에서 벗어나 세상의 그릇됨에 맞서 일어서는 용기를 우리 속에 채워주십시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가 평화와 입을 맞추는 새 세상의 꿈을 한 순간도 버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고후4:6	인도자
♠ 교 독 문	27. 시편121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황경순 집사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32.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다함께
성경봉독	I. 마6:1-4	인도자
	II. 눅18:9-14	강순배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뉘게 보이려는가?	김재흥 목사
	II. 바로 보기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현신의 찬송	485.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진 이웃들을 붙잡아 일으키기 위해 몸을 낮추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랑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는 이들, 지금 고독한 이들에게 다가서는 일을 통해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경 맥잡기/김기석 목사	10월 기도의 밤
기도 : 김훈동 권사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임보람 선생 한상익 장로	인도자 김 극 집사

9월	영접위원	한완식	하현철	조문규	강순배	최성애	진정숙
	헌금위원	조병무	김중수	김정길	송양진	허정윤	이순정

인간이 정도를 지키면

베네딕토에게 그리스도교는 삶의 방식이었다. 베네딕토의 사상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까지는 사람들의 일상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 즉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선물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선물을 아끼고 돌보아야 했다.

그 당시는 생필품을 생산해서 가능한 한 빨리 써서 없애는 세상은 아니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방 안을 무조건 환하게 밝혀놓지도 않았다. 무슨 일을 할 때에나 자연에 지나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애썼다.

또한 살아가는 동안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많은 것보다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성취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케케묵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새로운 철학이다. 아낌의 정신이 배어 있는 철학, 그 정신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대하고, 그로써 한층 너넉한 세상을 만드는 삶의 철학이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이 정도를 지키면 창조 세계와도 조화를 이루고, 모든 것이 균형을 잡고 아름답게 어울린다. 인간은 자연의 철칙을 경외하며 이 세계에 애정을 쏟아야 한다. 신에 의해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절제하며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은 바로 이 삶의 자세로부터 생명의 힘을 길어 올려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정도를 잃어버린 사람—수도사의 언어로 디스크레치온(Diskretion), 즉 ‘자제’ 혹은 ‘삼가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이로써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파국을 일으키게 되고 나아가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 재난을 야기한다. 이 경우 인간은 균형 잡힌 실존의 세 가지 의무, 즉 초월적 세계와의 결함, 이웃에 대한 책임, 이 세계에 대한 책임에서 이탈된 존재가 된다. 조화 균형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다.

현대 문명이 이런 관계에 대한 안목을 잃어버렸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세계에 대한 섬뜩한 위협에 대한 경각심도 사라져버렸다. 문화적 우수성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오히려

정신적 환경 파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베네딕토 수도회의 총체적 세계관에 따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주의 구조는 다시 이 지구에 어떤 식으로든 작용하는 것이다. 성 베네딕토의 제자였던 병엔의 힐데가르트(Hildegart von Bingen)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온 우주가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녀는 자신의 환상을 이렇게 기술했다. “바람마다 썩은 나뭇잎의 퀴퀴한 냄새를 풍기고 공기는 더러운 먼지를 토해내니 인간은 입을 열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정치적 현안으로 떠오르는 주제가 베네딕토의 근본 주장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라는 점은 새삼 증명할 필요도 없다. 각 정당에서 말하는 ‘새로운 중심’은 정치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표를 얻으려는 방안에 불과하다. 현대사회는 소유냐 존재냐의 싸움에서 유례없이 분명하게 소유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정도와 규칙을 지키는 삶에 맞서 정도에서 벗어나 자꾸 신기록을 갱신하는 데 재미를 붙인다. 베네딕토 수도원의 수도사들처럼 중심을 지키는 삶의 방식보다는, 극단적인 것을 맹종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는 삶의 방식이 선포되고 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존 신부의 말이다. “사람들이 베네딕토 성인의 근본 규칙을 외면하면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오래 전부터 이런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모월 모일, 모 지방, 모 신문을 통해 이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볼까요?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든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든 곳곳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요. 한마디로 삶의 시스템 자체가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기에 문제를 느끼고 일관되게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기후 변동 문제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지요. 어마어마한 양의 배기가스 배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섬은 물에 잠기고 해안 지역이 사라져버립니다. 수많은 인간이 피해를 입고 수없이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 신부는 이 말을 할 때 눈에 떨 정도로 격앙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진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도를 넘어섬’, ‘중심을 잃어버림!’”

흐린 것은 하늘이 아니다

--이현주

오늘은 구름이 끼어
하늘이 흐리다.
아니다.
흐린 것은 하늘이 아니다.
구름 낀 하늘이
흐릴 수 있는 것은
바탕이 맑기 때문이니
흐린 것은 결코 하늘이 아니다.

내 마음이
구름 낀 하늘은 될 수 있으나
흐린 하늘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거니와
나는 이 얇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내려가기를 오늘도
기다릴 따름이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옥식 박병규 김철수 유영남 고광송 이춘희 맹은선 박규석 박경선
 박영희 오진훈 노순옥 이봉우 이선림 임창선 조항신 임승동 백혜숙
 임고은 김병준 황지현

월정헌금:

김인걸 문영혜 김현영 정원석 김승현 김수진 박범희 박미영 박준희
 이기분 박찬정 이정은 이해동 최철수 광권희 김지현 김지은

감사헌금:

윤여민 임보람 정한구 송동준 김진경 이승영 이지은 이정은 박창운
 허정윤 오정숙 김지현 백묘현 광상언 한지혜 최철수 광권희 무명2

생일감사헌금: 윤석철 장혜숙 박찬정 문영혜 박석희 김경민

캄보디아우물헌금: 한지혜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허경기 이선림 (누계: 115,42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장 혜 숙	장 혜 숙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배 부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서 원 금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이 명 희	
갈 린 리	안 정 숙	박 애 순	진 정 숙	
베 다 니	박 흥 재	광 권 희	송 의 섭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임 미 심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최 숙 화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강 순 배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이 형 숙	
가 버 나 움	안 흥 숙	오 현 정	정 현 주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야 외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정 진 경	

